협업 신화의 파국… 끝나지 않는 '곰표 맥주' 갈등

제조업체 세븐브로이, 대한제분 계약갱신 거부에 파산 지경
대한제분은 기술탈취 의혹으로 곤경… 손배 협상 중단 상태
송인석 대표 국감 소환되기도… 올해 또 증언대 설지 귀추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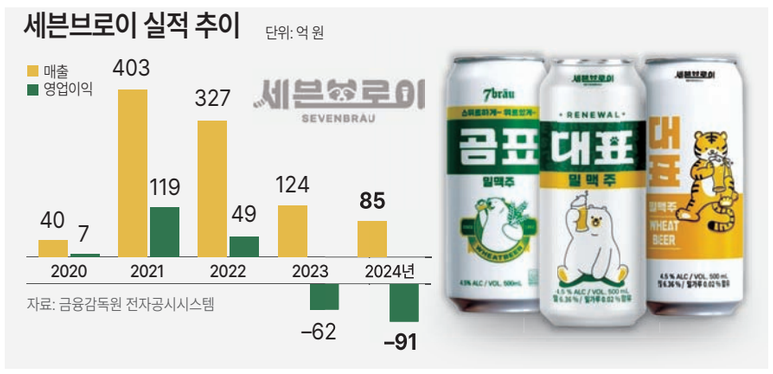
곰표 밀맥주를 둘러싼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맥주의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맥주 제조업체인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파산 위기에 놓였다.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 영업비밀을 빼돌렸다는 의혹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세븐브로이의 매출은 2021년 403억 원에서 2024년 85억 원으로 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2020년 7억 원에서 2021년 119억 원으로 1600% 급증했지만 2023년에는 62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2024년에는 91억 원이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세븐브로이가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경영난을 겪는 것은 대한제분과의 상표권 계약이 끝나면서 시작된 일이다.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는 2020년 손을 잡고 곰표 밀맥주를 출시했다. 출시 후 약 6000만 캔이 판매되면서 맥주 시장을 뒤흔들었다.

그러나 2023년 3월 상표권 사용 계약이 만료되자 갈등이 생겼다. 대한제분은 3년 계약이 끝나자 곰표 밀맥주 제조사를 세븐브로이에서 제주맥주로 변경했다. 이후 세븐브로이는 곰표 밀맥주 시즌2 제품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의 기술을 경쟁사에 전달하는 등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며 대한제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시즌2 제품의 제조법이 세븐브로이가 만든 곰표 밀맥주와 동일한 것으로 유추되는 부분이 있고, 원재료 목록·함량 비율 등이 기존 곰표 밀맥주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한제분이 2022년 4월 곰표 밀맥주를 직접 해외에 수출하겠다고 통보했으며, 계약 중단을 우려해 세븐브로이가 진행하던 모든 수출 사업을 대한제분에게 넘겨주고, 수출 노하우와 업체들을 대한제분에 소개해 주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세븐브로이 측은 거래처 명단과 영업비밀인 맥주 레시피를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대한제분은 주류 해외수출 경험이 없었고, 주류 수출 면허도 보유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대한제분 측은 기술탈취 의혹에 대해 '곰표 밀맥주 시즌2'는 제주맥주가 경쟁 입찰 당시에 제출한 샘플을 베이스로 개발한 제주맥주의 독자적인 레시피라고 반박하고 있다.

문제는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첫 심리기일(2023년 6월 21일)에 곰표 맥주 시즌2를 출시해 동종업계의 어려움을 뒤로 하고 이익만 좇는 행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의 분쟁은 작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송인석 대한제분 대표는 "조정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왕진 의원은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의 계약 기간 중에 생산한 1500t 분량의 맥주를 폐기하게 했으면서 "대한제분은 출고가 기준 50억 원의 맥주를 폐기하게 만들고 피해보상은 1억 원만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송인석 대표는 "사회적 책임감이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세븐브로이 관계자는 "만 7개월간 국회의 중재로 협상을 진행했지만 공인회계사 회계검증에서 68억 원의 손해액이 결정되자 대한제분은 손해액 배상을 거부하고 협상이 중단됐다"며 "대한제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와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사의 분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한제분이 본격적으로 주류사업에 뛰어들기 위한 초석으로 중소기업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대한제분 송인석 대표를 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그랜저 신형 출격… 스마트센스 II 기본탑재

고객 주요 선호사양 대폭 적용
각 트림별 기본화 편의성 제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품격 세단 그랜저의 연식 변경 모델이 출시된다.

현대자동차는 '2026 그랜저'를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2026 그랜저는 기존 모델의 주요 선호사양을 대폭 적용한 스페셜 트림 '아너스'를 새롭게 마련해 고객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

2026 그랜저 아너스는 다수의 고객이 선택품목으로 장착한 △현대 스마트센스 II △BOSE 프리미엄 사운드 패키지 △빌트인 캠 2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등과 함께 기존 캘리그래피 트림에서만 선택이 가능했던 △블랙 잉크 전용 외관 디자인 △캘리그래피 전용 19인치 알로이 휠 & 타이어 △순차 점등 방향지시등(앞·뒤)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앞·뒤) 등을 기본사양화해 고품격 세단의 고급감을 보다 합리적으로 접할 수 있게 구성했다.

또한 현대차는 빌트인 캠 2와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캘리그래피 트림에 기본화하고 △10.25인치 풀 터치 공조 컨트롤 △인터랙티브 앰비언트 무드 램프(순차 점등·주행상황 연동 기능 등) 등을 익스클루시브 트림 기본사양으로 적용하고 △천연가죽 시트 △1열 통풍시트 △스마트 파워 트렁크 등을 프리미엄 트림의 기본사양으로 구성하는 등 주요 선호사양을 각 트림별로 기본화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현대차는 2026 그랜저 출시를 기념해 현대차 첫 구매로 그랜저를 선택한 고객에게 1년 또는 2만 km 이내 발생한 외장 손상에 대해 부위 별 보장한도 금액 안에서 수리 및 교체를 보장하는 '바디케어 무상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그랜저 아너스 트림 계약 고객에게는 스마트 카드키를 무상으로 증정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2026 그랜저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그랜저 아너스는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한 스페셜 트림으로 우수한 상품성과 고급스러운 외관 등 디자인과 상품성 전 측면에서 고객 만족 실현을 목표로 준비했다"며 "내년 출시 4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대표 프리미엄 세단 그랜저에 대한 고객의 오랜 성원에 우수한 상품 가치로 보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문수·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1차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기 대선에 제약 바이오 공약 '뒷전'

구체적 실질 육성 방안 실종
한국바이오協 10대 정책 제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제약·바이오 산업은 국가 생존 전략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의 관련 공약은 두루뭉술하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기 대선으로 공약 조율 시간마저 촉박했던 탓에 핵심 산업 육성의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21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구체적·실질적인 육성 방안을 찾아보기 어렵다.

각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제약 바이오를 "미래 성장동력"이라 부르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공약집에는 관련 세부 정책이나 실행 로드맵이 없거나 '바이오'의 단어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바이오헬스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분류하며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를 강조했지만 실질적 지원 규모나 기업 체감형 정책은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이오 헬스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분류한 것은 제약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체계화하고 혁신형 기업들을 적극 육성해 신약 개발 등에 실질적으로 힘을 싣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규제 철폐'를 언급했을 뿐 어떤 규제를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구체적 방향성은 제시하지 않았다. 바이오 헬스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인만큼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장벽을 허물고 경쟁력 있는 선도 기업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글로벌 규제 수용 제도를 제안했지만 10대 공약에는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다만 9번째 정책인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기준 국가제 실시'를 통해 신산업의 걸림돌이 된 규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세 후보 모두 R&D 투자 확대, 규제 개선에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다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향후 나올 최종 공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공약이 두루뭉술해진 배경에는 조기 대선이라는 일정 변수가 한몫했다.

대선 일정이 앞당겨지며 각 캠프가 충분한 정책 조율을 거치지 못했고 제약·바이오 분야는 의료·복지 공약에 밀려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대선 캠프들이 산업계의 의견을 공약에 반영하는 공식 창구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10대 정책은 신약 개발 혁신 성장 생태계 구축,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지원, 예측할 수 있는 약가 정책 수립 등 세 축으로 구성돼 있다.

허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治 人 治 世 선미디어
고전을 통해 만나는 현대인의 치인치세 해법
화제의 책 ★★★
언론인 출신 인문학자의 고전 해석 통한 사회적 문제점 해법 제시
황종택 칼럼 신온고지신 시리즈 1
고전, 당신의 생각을 바꾼다
334쪽 | 15,000원
황종택 칼럼 신온고지신 시리즈 2
고전, 당신의 행동을 바꾼다
336쪽 | 14,000원
황종택 칼럼 신온고지신 시리즈 3
고전,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324쪽 | 14,000원